One pck

업 앤 다운

'갑질 의혹'에도 밝은 표정 일정 소화 꿋꿋한 옥주현…팬들은 엇갈린 시선



"늘 그렇듯이 무대 에서 보답하겠습니 다!"

뮤지컬배우 겸 가수 옥주현이 '친분 캐스 팅' 논란에도 꿋꿋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 다. '스태프 갑질'의 혹까지 불거졌지만, 밝은 표정으로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하는 등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 화하면서 논란에 맞서 고 있다.

앞서 옥주현은 8월 개막하는 뮤지컬 '엘

리자벳' 10주년 기념 공연의 캐스팅에 관여했다는 의혹 에 휩싸였다. 배우 김호영이 개인 SNS에 "아사리판은 옛말, 지금은 옥장판"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을 키 웠다. 이에 "캐스팅에 관여한 바 없다"며 김호영을 고소 하기까지 했으나 남경주·최정원 등 1세대 뮤지컬 배우 들이 "정도를 지켜 달라"고 호소하는 성명문을 발표하 자 이를 취하했다.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한 공연의 스태프로 참여했다가 옥주현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와 또 다른 파장 을 낳았다.

연이은 잡음에도 옥주현은 흔들림이 없었다. 6월27일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뮤지, 안영미입니다'의 생 방송에 출연해 논란에 대한 언급 없이 공연 중인 뮤지컬 '마타하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6월30일에는 개인 SNS에 "지붕까지 꽉 채워주시는 관객 여러분, 터질 듯 한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는 선물 같은 순간을 가슴 깊이 담고 있다"면서 "무대에서 (이를)보답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역시 논란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혼란은 고스란히 대중의 몫으로 남겨졌다. 일부 팬들 은 옥주현을 응원하고 있지만, 많은 대중은 "논란에 대 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며 답답함을 드 러냈다. 날로 이어지는 소란이 피로하다는 반응도 잇따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로트 가수? 성악가?…그냥 노래하는 사람"

미스터트롱 출연으로 바뀐 인생 복무기간 기다려준 팬들 고마움 클래식 앨범 내고 보답하고 싶어 플라시도 도밍고와 공연 꿈 같아 장르 얽매이지 않고 노래할래요



소집해제후 본격 활동 나서는 가수 김호중

'트바로티'. 트로트와 파바로티를 합 친 말로 가수 김호중(31)을 일컫는 수식 어이다. 보통 수식어는 그 사람을 아름 답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굳이 포 장하거나 꾸미지 않아도 김호중이라는 가수를 이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수식 어는 없는 듯하다.

한양대학교 성악가를 중퇴한 그는 2020년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4위에 오르며 주 목받았다. 방송 출연 이전에는 성악가로 도 활동했다.

김호중은 성악과 트로트,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장르를 오가며 인생이 달 라졌다. "처음엔 내가 (미스터트롯에)출 연하는 게 맞나, 오랜 고민 끝에 도전했고 그 결과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성 악가가 무슨 트로트냐"라는 괜한 오해도 받지만, 이제는 그의 인생이 됐다.

지난달 9일 1년 9개월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된 후 처음 선보 이는 정규 음반도 클래식이다. 27일 발표 하는 앨범 '파노라마'는 정통 성악곡부터 발라드 감성이 느껴지는 크로스오버, 라 틴 음악 등 클래식을 기본으로 총 16곡이



'트바로티' 김호중이 클래식 앨범 '파노라마' 발표를 앞두고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 편안한 음악을

담긴다. 타이틀곡은 '주마등'과 '약속' 두 곡이고, 이 가운데 '약속'은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작곡에 참여했다. 선배 가수 최 백호와 부른 듀엣곡도 실었다.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에서 만난 그는 "사회복무 기

간동안 힐링과 충전의 시간이었다"면서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준 팬 들이 정말 고마웠다.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다양한 모습과 활 동으로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소집 해제 후 KBS 1TV '평화콘

서트', '드림콘서트 트롯', 팬들을 위한 신곡 '빛이 나는 사람' 발표, 특히 세계 3대 테너 중 한 명인 플라시도 도밍고 내 한공연의 듀엣 무대는 화제를 모았다.

"어릴 때 파바로티 음악을 듣고 성악 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어요. 세계 3대 테너 중 한 분의 초청장을 받았는 데, 꿈인가 싶었어요. 나한테 일어난 일 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래도 내가 '길'을 많이 이탈하지 않고 바른길을 갔 구나, 인정받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 요. 성악을 시작했을 때도 도밍고 선생 님의 영상은 공부하듯 봤거든요. 훗날 함께 오페라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게 스트가 아니라 듀엣으로요. 뿌듯했고. 안도도 됐어요. 저 자신에게도 고마웠던 시간이었어요."

김호중은 자신을 알리는 계기는 '미스 터트론'으로 출발해 지금까지 왔지만. 뼈대인 성악과 구별해 '트로트 가수'라 는 타이틀을 떼거나 영역이나 장르를 구 별 짓지 않겠다는 각오다.

"어떤 분은 트로트가수, 성악가라고 불러주시죠. 그런 수식어도 나쁘지 않지 만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댄스까지는 아니어도 노래를 하는 게 목 표이니까. 장르에 얽매이기보다는 김광 석 선생님처럼 노래하면 김호중, 편안한 음악을 하고 싶어요. 트로트라는 게 어 느 가수가 부르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남진 선생님의 '둥지'가 발성이나 창법 에 의해 장르가 정해진다 생각해요. 앞 으로 주어지면 고민하지 않고 제 방식대 로 풀어가는 공부를 해보려고요.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신비주의 사양할래!…예능행 나서는 아이돌

'NCT 127' 도영 '집사부일체' 출연 미미는 '지구오락실'서 반전 매력 "자연스러운 내 모습 보여줄래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케이(K) 팝 그룹 멤버들이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색다른 매력을 드러내고 있 다. 이들은 시청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망가짐도 불사한다. 무대 위의 화려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예능 출연에 소극적 이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NCT 127의 멤버 도영은 7일부터 SBS '집사부일체'에 출연한다. 가수 이승기·은 지원, 방송인 양세형, 종합격투기선수 김 동현 등과 함께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로부 터 인생 노하우를 배운다. 일본과 싱가포 르에서 그룹의 두 번째 월드투어 '네오 시 티-더 링크'를 여는 등 해외 활동이 한창이 러내며 최근 첫 촬영을 마쳤다.

실'을 통해 예능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 했다. 개그우먼 이은지. 가수 이영지 등과

태국에서 각종 게임을 벌이는 프로그램에 서 독특한 말투와 털털한 성격으로 시청자 의 시선을 끌고 있다. 그동안 방송 출연이 드물었던 그는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라붐의 메인보컬 소연은 MBC '놀면 뭐 하니?'의 WSG워너비 프로젝트에 참여하 고 있다. 4월 초 열린 오디션을 거쳐 가수 하는 티빙 '제로섬게임'에서 방송인 장성 오마이걸 미미도 tvN '뿅뿅 지구오락 규, 모델 한혜진, 배우 이이경과 함께 공동 진행자로 활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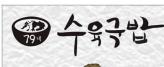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은 해외에서 커지는 었다.





케이팝 그룹들의 영향력에 기대 이들을 적 나비, 씨야 이보람, 배우 정지소 등과 여성 극적으로 기용하고 있다. '뿅뿅 지구오락실' 보컬그룹 WSG워너비 멤버로 발탁됐다. 의 연출자 나영석 PD는 "최근 들어 대중 사 지만, 프로그램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 (여자)아이들의 멤버 우기도 1일 첫 공개 이에서 아이돌이 특별한 존재가 아닌 직업 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아이돌 멤버들 이 조심스러워하던 분위기가 많이 가셨고. 그만큼 촬영하기 더 편해졌다"고 변화를 짚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30년 다닌 회사 월급 얘기에 장사이제 1년 한 친구 녀석이 어깨를 토닥였다 "

다니던 회사 때려 치우고 국밥창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 ✓ 잘 다니던 본사 직원이 뛰쳐나가 창업했다.
- ✓ 기존 점주의 친한 친구가 따라 창업한다
- 기존 점주가 추가로 창업한다
- 직영점 매출이 끝내준다

프랜차이즈 업체 10곳 중 6곳은 직영점이 없다

*공정위 2019 정보공개서

매출과 수익이 좋지 않으면 직영점 운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79네수육국밥은 직영점 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플하고 단단한79네수육국밥 창업 시스템

조리와 운영이 어렵다면 잘못된 창업입니다.

체계화된 시스템과 심플한 조리. 점주님은 그냥 올라 타시면 됩니다.

우직하게 오래 가는 창업

2012년부터 10년을 장사하며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50년도 끄떡 없습니다.

창업문의 1800-7926



















